

유아의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장수연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만3~5세 유아 315명의 담임교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다중회귀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검증에서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 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어 부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지지되었으며,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검증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I. 서론

초저출산의 추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무상보육의 시행,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유아교육·보육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도남희, 2018). 오늘날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과거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맡겨지고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가족 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함께 일과를 보내고 상호작용하며 확장된 정서적 유대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

* 본 논문은 한국인간발달학회 2021년 온라인춘계학술대회(2021.06.05.)에서 포스터 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하였음.

1) 숭의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다(안선희, 2002; 이나영·양시내, 2016). 즉,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예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친숙한 가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며, 확장된 인간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래들과 함께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이라고 한다. 유아의 교육기관적응 여부는 학령기 뿐 아니라 이후 발달과 학교생활적응의 근원이 되는 만큼 이 시기에 교육기관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손수민, 2011; 안선희, 2002; Armstrong, Missall, Shaffer et al., 2009; Johnson, Ironsmith, Snow et al., 2000; Perry & Weinstein, 1998; Pianta, 2007; Ramey & Ramey, 1994).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개인특성변인과 가정환경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황윤세, 2011), 유아 개인특성 변인 중 성별, 연령, 기질과 같은 변인들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희, 2002; 이나영·양시내, 2016; 이은선·성기혜·김근향, 2016; Klein, 1982; Klein & Ballantine, 1988; Slee, 1986). 특히 기질과 관련해서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Slee, 1986), 쉽게 반응하고 지속성이 낮으며, 쉽게 그만두는 등의 기질적 특성이 교육기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Klein, 1982). 반면 활동성이 낮고, 지속성이 높으며, 반응적이고 먼저 접촉을 시도하는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ein & Ballantine, 1988). 국내 연구에서도 안선희(2002)는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개인적인 특성변수로 연령, 성별, 기질 등을 제시하였고, 이나영과 양시내(2016)도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변인으로 연령, 성별, 기질,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성, 인지 및 언어능력, 정서지능, 또래유능성, 자기조절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주로 기질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기질(temperament)은 유전에 의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은선·성기혜·김근향, 2016; 황순택·조혜선·박미정 외, 2015)으로 변화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결정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에 따른 적응수준의 차이나 개인차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Cloninger, Svrakic과 Przybeck(1993)은 심리생물학²⁾적 성격모델에서 성격(personality)을 두 개의 서로 밀접한 관계인 기질차원과 성격특질

2)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체계의 창시자인 아돌프 마이어(Adolf Meyer)에 의해 창시된 심리생물학(Psychobiology)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뇌간에서 발생하는 본능적 행동을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킨 결과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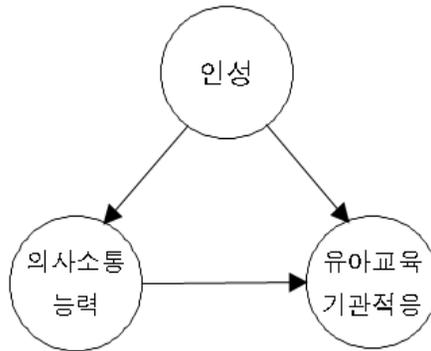
(character)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기질은 선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극에 대하여 자동적인 정서반응(an automatic emotional response to stimuli)으로 나타나며, 초기에 발달하여 평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성격특질은 타고난 기질과 경험, 학습, 문화 같은 후천적인 환경적 영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각 개인의 성격특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 수준의 차이나 개인차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Slee, 1986; 안선희, 2002; 이나영·양시내, 2016)에서는 기질만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이나 학습에 따른 적응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Cloninger, Svrakic과 Przybeck(1993)은 기질차원 외에 적응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질 및 성격특질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개발함으로써 환경의 영향에 따른 개인차와 적응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TCI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 등 4가지 기질차원과 자율성(Self-Directedness, SD), 연대감(Cooperativeness, C),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ST) 등 3가지 성격특질 차원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성격특질 차원인 자율성은 상황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개인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적응시키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연대감은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수용하고 타인과 동일시하는 측면과 관련된 차원이며, 자기초월은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만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된 차원이므로 이는 유아기 인성의 하위요인인 개인가치, 대인가치, 사회가치(나은숙·김경희, 2014; Althof & Berkowitz, 2006)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개인가치는 자아확립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존중, 자기조절 등이 포함되며 대인가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수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세계시민의식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질관련 연구들(이은선·성기혜·김근향, 2016; 황순택·조혜선·박미정 외, 2015; 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에서 제시한 성격특질(character)은 인성(character)과 character라는 용어의 표기뿐 아니라 하위요인의 개념적인 부분에서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서구적 전통에서의 인성개념은 대체로 character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이라는 보편적인 표기법으로도 알 수 있다(김영례·강선보·정창호 외, 2016).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성은 사람의 품성을 말하며, 품성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하는 것(윤갑정, 2021)으로 이것은 기질과 환경 영향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성격특질과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개별적인 적응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용어의 표기나 개념적 정의 측면에서 성격특질이 인성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인성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능력은 유아마다 많은 개인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이 인성(character)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아교육기관적응과 인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어 찾아보기 어려웠다(이은주·조은미·이경민, 2010). 또한 창의적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홍성희, 2015)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인성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창의성을 연구한 것으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인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유아기는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우영효, 2004; 장영숙·조정화, 2010; 장영은·박정운·이승미 외, 2010; 홍순옥, 2001) 이 시기에 형성된 인성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김은설, 최은영과 조아라(2013)는 영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이 이후 학교폭력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목적인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9)는 내용과도 부합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에 바른 인성을 형성함으로써 공감능력, 자기조절력, 타인존중, 공명정대함, 책임감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반면, 바른 인성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영유아들 간 따돌림, 배척, 잦은 싸움이나 신체적 공격행동, 욕이나 비속어 같은 언어적 문제행동 등이 나타나 또래나 교사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적응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최은영·조아라, 2013). 이 시기에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법 제2조에서 이를 실천 및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능력을 제시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김동일·최선주·심성용 외, 2016). 이와 같은 교육적·법률적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기질이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희태·김정림·이임순 외, 2013) 정도만 있을 뿐 유아기 인성과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라틴어 communis(공통, 공유)에서 유래된 말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전달과 상호교류를 원활하게 이루는 능력을 말한다(홍경자, 2012). 즉,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전달된 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으로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유아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게 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이용주·윤지영, 2004; Black & Hazen, 1990). 유아기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수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odge, Pettit, McClaskey et al., 1986; Dodge, Schlundt, Schocken et al., 1983; Putallaz & Gottman, 1981), 학령기에는 또래관계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ierman & Furman, 1984; Ladd, 1981). Denham과 Holt(1993) 그리고 Johnson 등(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또래들 간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잘 적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정서발달이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심·박은주·문수백, 2012).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일반유아보다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언어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을 살펴본 연구들(임향희, 2013; 조진희, 2011)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실제로 창의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홍성희, 2015)이 전부이며, 주로 기질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일반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다면, 영유아기에 바른 인성을 형성하게 되면 확장된 사회관계가 이루어지는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유아들은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성,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확장된 사회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의 인과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시에 위치한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3~5세는 국가수준의 공통 유아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연령으로 모든 발달영역에서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인 발달적 관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 또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315)

구분	중분류	세분류	명(%)
아동	성별	남	173(54.9)
		여	142(45.1)
	월령	3년1개월-3년11개월	47(14.9)
		4년1개월-4년11개월	107(34.0)
		5년1개월-5년11개월	134(42.5)
		6년1개월-6년11개월	23(7.3)
		기타	4(1.3)
	형제관계	첫째	144(45.7)
		둘째	122(38.7)
		셋째	17(5.4)
외동		32(10.2)	

2. 연구도구

가. 유아용 인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성특성을 측정하고자 나은숙과 김경희(2014)가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한 만3~5세 유아용 인성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용서, 관용, 긍정적 상황 전환, 책임감, 타인존중, 타인배려와 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대인가치(10문항), 자아확립, 긍정적 생활태도, 끈기, 자기조절,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가치(9문항), 친구를 돕거나 상황 및 환경에 관심을 갖는 등 주로 세계시민의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봉사, 헌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사회가치(5문항) 등 3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인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95였으며, 대인가치 .93, 개인가치 .90, 사회가치 .81로 나타났다.

나. 유아용 의사소통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임승렬, 남현정 그리고 김정림(2014)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한 유아용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사회·정서적 능력(11문항),

타인 및 상황에 대한 지식, 상호주관성, 동작언어에 대한 이해, 기억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지적 능력(7문항), 언어의 이해와 표현에 관련된 것으로 어휘, 문법, 유창성, 은유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언어적 능력(10문항) 등 3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인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97이었으며, 사회·정서적 능력 .94, 인지적 능력 .92, 언어적 능력 .94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 척도

유아의 교육기관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원신(2006)이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이 개발한 질문지를 번안 및 수정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유아교육기관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아의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친사회적 특성의 내용이 포함된 친사회성(5문항), 유아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낸 내용이 포함된 기관에서의 정서상태(4문항),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고 또래관계에 적극적인 특성이 포함된 또래 간 적응(6문항), 자기주장적, 주도적, 독립적이며 자신감이 있는 특성이 포함된 자아상태(6문항), 지시에 잘 따르고 정해진 일과에 충실하며 변화에 대해 쉽게 적응하는 특성을 포함한 일과에 대한 적응(7문항) 등 5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인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96이었으며, 친사회성 .87, 기관에서의 정서상태 .82, 또래 간 적응 .89, 자아상태 .87, 일과에 대한 적응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만3~5세 유아 45명(남23명, 여22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담임교사가 문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지의 문항을 이해하기 용이하게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우편으로 400부를 보낸 후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우편으로 다시 350부(87.5%)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패턴화되어 있거나 결측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코딩에서 제외하고 최종 315부(78.8%)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은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셋째, 의사소통능력이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의 관계에서 분석방법에 따라 어떻게 매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한 매개효과검증(Mediating

Effects)을 위하여 추가분석으로 간접효과 유의성검증인 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로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 NNFI, CFI, RMSEA를 사용한 이유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으며, 간명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수에 비해 바람직한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

가.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각 측정변인의 일반적 특성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각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에서 모든 변인이 적절한 값(왜도 <2, 첨도 <7)의 범위 내인 왜도 -.90~-.34와 첨도 -.14~1.61 사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정상성이 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수집한 자료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3.09~3.45의 평균과 .61~.68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바 수집된 자료는 중심경향과 분산도가 적정할 뿐 아니라 상관 및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각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315)

잠재요인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인성	대인가치	1.00	5.00	3.18	.65	-.34	-.14
	개인가치	1.13	4.63	3.09	.61	-.42	.13
	사회가치	1.00	4.75	3.18	.66	-.72	.99

잠재요인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의사소통 능력	사회정서능력	1.00	5.00	3.12	.67	-.80	1.48
	인지적 능력	1.00	5.00	3.45	.68	-.72	1.27
	언어적 능력	1.00	4.89	3.24	.67	-.90	1.46
유아교육기 관적응	친사회성	1.00	5.00	3.29	.65	-.41	.63
	정서성(상태)	1.00	5.00	3.37	.61	-.44	1.29
	또래 간의 적응	1.00	4.83	3.31	.64	-.51	1.39
	자아상태	1.00	4.83	3.21	.61	-.42	1.61
	일과에 대한 적응	1.00	5.00	3.38	.68	-.65	.86

나.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상관관계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련성은 .39~.67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99%의 신뢰도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에서도 .52~.7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에서도 .31~.68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모든 측정변인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3>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간 상관분석

(N=315)

잠재요인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측정변인	대인 가치	개인 가치	사회 가치	사회정 서능력	인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	친사회 성	정서성	또래간 의적응	자아 상태
개인가치	.73**									
사회가치	.52**	.59**								
사회정서 능력	.42**	.65**	.69**							
인지적 능력	.39**	.58**	.61**	.78**						

잠재요인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언어적 능력	.39**	.63**	.67**	.85**	.84**					
친사회성	.66**	.64**	.66**	.62**	.63**	.59**				
정서성	.55**	.60**	.52**	.57**	.52**	.53**	.64**			
또래 간의 적응	.53**	.61**	.49**	.63**	.60**	.57**	.64**	.76**		
자아상태	.31**	.57**	.40**	.64**	.56**	.61**	.46**	.68**	.70**	
일과에 대한 적응	.64**	.68**	.59**	.65**	.70**	.64**	.76**	.72**	.75**	.66**

** $p < .001$.

2.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가.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부분매개모형이라고 하고,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전매개모형이라고 한다.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의 경우, 매개효과유형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연구모형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완전매개 혹은 부분매개효과의 중요성에 대한 과소 및 과대평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지성호·강영순, 2014).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유아의 인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N=315$)

모형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R	R^2	F
		B	SE	β				
a	(상수)	.77	.15		5.13**	.69	.48	284.16**
	인성	.79	.05	.69	16.86**			

** $p < .001$.

〈표 5〉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

(N=315)

모형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R</i>	<i>R</i> ²	<i>F</i>
		<i>B</i>	<i>SE</i>	β				
c	(상수)	.92	.12		7.82**	.76	.58	429.99**
	인성	.76	.04	.76	20.74**			
b	(상수)	1.18	.11		10.92**	.75	.56	399.28**
	의사소통능력	.65	.03	.75	19.98**			
c'	(상수)	.63	.11		5.87**	.82	.67	323.12**
	인성	.47	.05	.47	10.44**			
	의사소통능력	.37	.04	.43	9.58**			

** $p < .001$.

유아의 인성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84.16$, $p<.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인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8%로 나타났다. 유아의 인성과 의사소통으로 유아교육기관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인성($F=429.99$, $p<.001$)과 의사소통($F=399.28$, $p<.001$)의 각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기관적응이 인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8%, 의사소통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56%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이 유아교육기관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단계적 진입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이에 대한 회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323.12$, $p<.001$) 유아교육기관적응이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67%로 나타났다.

Kenny(2015)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매개효과검증을 4단계에 걸쳐 설명하였는데, 이 4단계 기준에 따라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첫째,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76$, $p<.001$), 둘째, 유아의 인성이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69$, $p<.001$), 셋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5$, $p<.001$). 마지막으로 유아의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기 인성의 β 값이 .47로 의사소통능력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대한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의 유아기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모형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추가분석으로 경로분석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5,000번) 검증을 실시하여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성이 의사소통능력으로 가는 경로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β :.69, p <.001)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능력이 유아교육기관적응으로 가는 경로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β :.75, p <.001)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으로 가는 경로치(β :.76, p <.001)와 인성이 의사소통능력을 거쳐 유아교육기관적응으로 가는 경로치(β :.52, p <.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부분매개효과를 지지하였다.

<표 6>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N=315)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성(ρ)	의사소통(ρ)	인성(ρ)
의사소통	.69**(.000)		의사소통
유아교육기관적응	.76**(.000)	.75**(.000)	.52**(.000)

** p < .001.

<표 7>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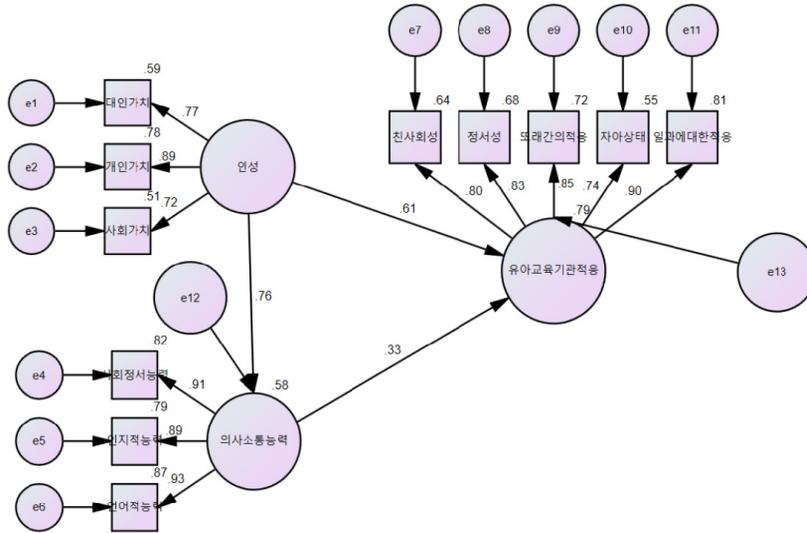
모형	χ^2	df	p	NNFI	CFI	RMSEA
연구모형	402.59**	41	.000	.92	.95	.12
수정모형	92.71**	33	.000	.97	.98	.08
수용기준			p >.05	.90이상	.90이상	.05이하

** p < .001.

Bootstrapping 간접효과 유의성검증을 통해 확인된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의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NFI가 .92, CFI가 .95로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으나 RMSEA는 .12로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정모형으로 작성하고자 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였더니 RMSEA 지수가 .08정도까지 올라갔으나 간명성을 고려해본다면 바람직한 모형의 선택이 아니라 판단되어 원래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론모형을 평가함에 있어 CFI와 NNFI가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면(CFI, NNFI>.90), RMSEA값이 작은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암시하므로, CFI와 NNFI 위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고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적합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부분매개모형과 이에 대한 효과크기는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2] 부분매개모형과 매개효과크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여기에 의사소통 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

첫째, 유아의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인성의 모든 하위요인(개인가치, 대인가치, 사회가치)은 유아교육기관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친사회성, 정서성, 또래 간 적응, 자아상태, 일과에 대한 적응)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난 이유는 인성의 하위요인이 개인가치(자아확립, 긍정적 생활태도, 끈기, 자기조절, 노력 등), 대인가치(용서, 관용, 긍정적 상황 전환, 책임감, 타인존중, 타인배려와 협력 등), 사회가치(상황이나 환경에 관심을 갖는 등 주로 세계시민 의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봉사, 헌신 등)이기 때문에 유아가 인성의 각 하위 요인에 적합한 행동을 할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나은숙·김경희, 2014; Althof & Berkowitz, 2006). 나은숙과 김경희(2014)는 유아기라는 특성상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또래들과 함께 일과를 보내며 또래들과 많은 다툼을 가지지만 아직까지 분노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성형성의 정도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바른 인성을 형성한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타적이고 협동적인 친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며,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인기 있는 친구가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며 일과 내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대인, 사회가치가 궁극적으로 높게 확립된 유아들은 Berkowitz와 Grych(2000)가 말한 것처럼 친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나은숙·김경희, 2014, 재인용)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도 선호되며, 일과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Denham & Holt, 1993; Johnson, Ironsmith, Snow et al., 2000) 유아교육기관에서 안정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의사소통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사회정서능력, 인지능력, 언어능력)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인성의 가치덕목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일 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사회관계에서 경험이나 학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 실천 및 실행역량이기 때문에(김동일·최선주·심성용 외, 2016) 소통 상황에서 나타내는 언어적·비언어적인 모습을 통하여 개별 유아의 인성형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유아기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련성은 법령과 선행연구(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김동일·최선주·심성용 외, 20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인성의 가치덕목들을 대인

및 사회관계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바른 인성의 가치덕목을 습득한 유아라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또래나 교사들과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도덕성발달에서 나타나듯이(Berkowitz & Grych, 2000) 올바른 가치관을 토대로 태도가 형성되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셋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아교육기관적응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박민정·이병인, 2010; 임영심·박은주·문수백, 2012; 임향희, 2013; 조진희, 2011)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임영심, 박은주와 문수백(2012)을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과 유아교육기관적응 간의 관련성을 본 것이므로 일반가정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기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수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는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래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과(Bierman & Furman, 1984; Denham & Holt, 1993; Dodge, Pettit, McClaskey et al., 1986; Ladd, 1981; Putallaz & Gottman, 1981)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2. 유아의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유아의 인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 아니라 인성이 의사소통능력을 거쳐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아의 인성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었다. 특히,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설명력보다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정도를 설명하는 데 의사소통능력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가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인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김동일·최선주·심성용 외, 2016),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박민정·이병인, 2010; 임영심·박은주·문수백, 2012; 임향희, 2013; 조진희, 2011), 그리고 유아의 인성이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이은주·조은미·이경민, 2010)는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며, 여기에 더하여 직접적

인 영향을 나타낸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더 큰 설명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각각의 개별 변인들에 따른 직접효과만을 연구하였을 뿐이며, 개별 유아의 인성 특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인성의 가치덕목을 내면화 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행하여 나타내는 의사소통능력이 매개되었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하나의 연구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예전보다 이른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에 입소하는 원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요인들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결과에 따라 정리해 보면, 첫째, 인성점수가 높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적응 점수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인성이 잘 형성된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의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바른 인성형성이 유아의 교육기관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김은설·최은영·조아라, 2013; 이은주·조은미·이경민, 2010; 홍성희, 201)과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인성점수가 높은 유아들이 의사소통능력 점수에서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이고 바른 인성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적합한 소통능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김동일·최선주·심성용 외, 2016; 김희태·김정림·이임순 외, 2013)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아들이 또래관계가 좋고 사회적으로 더 잘 수용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더 잘 적응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용주·윤지영, 2004; 임영심·박은주·문수백, 2012; Black & Hazen, 1990; Denham & Holt, 1993; Dodge, Pettit, McClaskey et al., 1986; Putallaz & Gottman, 1981)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성과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모두 높은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적응의 점수에서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확장된 사회 환경인 유아교육기관에서 바른 인성을 형성한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잘 받아들여도록 의사소통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유아교육기관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유아교육기관적응에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의 개별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것에 더하여 상황에 적합한 의

사소통능력을 갖추므로써 더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성의 형성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질문지를 수거함에 있어서 회수율이 낮았을 뿐 아니라 결측치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배부 및 수거라는 방식에서의 문제와 질문문항에 충실히 답변을 하지 않는 패턴화 문제로 인한 결측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배부 및 수거의 방식을 달리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온라인 질문지를 사용한다거나 질문지 문항의 수를 적절히 하여 응답할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패턴화로 인한 결측치를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아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이라는 발달과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개별 요인인 인성과 의사소통능력의 직접적인 영향력도 높게 나타났지만, 의사소통능력을 매개로 한 인성의 영향력이 각각의 개별 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인성의 가치덕목을 내면화하고 이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서 바른 인성의 가치덕목을 내면화시키고, 이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시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바른 인성을 내면화하는 인성교육(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김은설·최은영·조아라, 2013)의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인성의 가치덕목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김영례·강선보·정창호 외, 2015)의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아기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관계에서 인성의 가치덕목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인 동시에 사회적 수용을 예측하는 변인(Bierman & Furman, 1984; Denham & Holt, 1993; Dodge, Pettit, McClaskey et al., 1986;

Ladd, 1981; Putallaz & Gottman, 1981)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른 인성의 형성을 위한 가치덕목의 교육 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역량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교육지원체제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뿐 아니라 효율적인 실행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영례 외(2015)가 제시한 방향대로 인성교육의 전체 구도를 역량중심으로 설계 및 시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적·정책적 지원체제 마련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유아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모델을 제시함에 있어서 국가공통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목적 및 목표를 고려하여 바른 인성을 형성하고 이를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아주도의 놀이지원 방안과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누리과정이 근간이 되어 교육모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발달영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소속에 관계없이 공평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03호(신규제정 2015.07.20.). <https://www.law.go.kr/>
-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2012).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훈련프로그램 및 연수 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김동일·최선주·심성용·이재진·라명안(2016). 인성중심 미래교육 디자인 과제와 전망. 아시아 교육연구, 17(1), 25-45.
- 김영례·강선보·정창호·이성흠·류은영·이동윤(2015).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의 연구모형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2), 21-45.
- 김은설·최은영·조아라(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14.
- 김희태·김정림·이임순·남연정(2013). 유아의 기질, 교사-유아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사단법인 창립총회 및 2013년 추계 정기학술대회. 기회주제 학술세미나 I, 164-177.

- 나은숙·김경희(2014). 3~5세 유아용 인성척도 개발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433-452.
- 도남희(2018).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일가동행 직장보육*, 1, 1-7.
- 박민정·이병인(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정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45(1), 129-151.
- 손수민(2011). 만3세 한국인 유아의 미국유치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147-172.
- 안선희(2002). 유아의 유치원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01-219.
- 우영효(2004). 유아 인성교육의 방향. *아동교육*, 13(1), 147-158.
- 윤갑정(2021). 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 연구동향과 과제: 도덕적·시민적 인성의 조화. *인문사회*21, 12(3), 1675-1690.
- 이나영·양시내(2016). 영유아 적응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4), 355-380.
- 이용주·윤지영(2004).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9(3), 265-280.
- 이은선·성기혜·김근향(2016). 우울장애 환자군의 기질 및 성격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287-297.
- 이은주·조은미·이경민(2010). 유아교육기관적응과 기질 및 인성특성 간의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0(0)*, 231-233.
- 임승렬·남현정·김정립(2014). 유아 의사소통능력 측정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연구. *유아교육학론집*, 18(5), 53-77.
- 임영심·박은주·문수백(201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영아발달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207-224.
- 임원신(200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향희(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조정화(2010). 부모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가정환경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6(2), 309-336.
- 장영은·박정윤·이승미·안진경·김은영(2010). 2010년 정책연구개발사업: 유아·초등교육 내에서의 인성교육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조진희(2011).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성호·강영순(2014). 사회과학분야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매개효과검증방법에 대한 논의.

-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6(6), 3121-3131.
- 황순택·조혜선·박미정·이주영(2015). 성격장애와 기질 및 성격특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2), 1-13.
- 황윤세(2011). 유아교육기관적응 평가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31(4), 315-339.
- 홍경자(2012). 의사소통의 심리학. *이너북스*.
- 홍성희(2015).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유아교육기관과의 관계. *동아인문학*, 0(33), 573-596.
- 홍순옥(2001). 유아의 인성과 가정환경. *인문과학논총*, 4, 219-238.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lthof, W., & Berkowitz, M. W. (2006).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Their relationship and roles in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4), 495-518.
- Armstrong, K., Missall, K., Shaffer, E., & Hojnoski, R. (2009). Promoting positive adaptation during the early childhood years. In R. Gilman, E. S. Huebner, & M.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pp.339-352). NY: Routledg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kowitz, M. W., & Grych, J. H. (1998). Fostering goodness: teaching parents to facilitate children'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3), 371-391.
- Bierman, K. L., & Furman, W. (1984).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and peer involvement on the social adjustment of pre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5(1), 151-162.
- Black, B., & Hazen, N. H. (1990). Social status and patterns communication in acquainted and unacquain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379-387.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75-99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nham, S. A., & Holt, R. W. (1993). Preschoolers' likability as cause or consequence of their 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71-275.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2), 1-85.
- Dodge, K. A., Schlundt, D. G., Schocken, L., & Delugach, J. D. (1983).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The role of peer group entry strategies. *Merrill-Palmer Quarterly*, 29(3), 309-336.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doi:10.1016/S0885-2006(05)80097-3
- Johnson, C., Ironsmith, M., Snow, C. W., & Poteat, M. (2000). Peer acceptance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7(4), 207-212.
- Kenny, D. A. (2015, December 30). Mediation. <http://davidakenny.net/cm/mediate.htm#BK> 에서 2021.07.25.인출.
- Klein, H.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nd Head Start settings. *The Journal of Psychology*, 112(2), 259-268.
- Klein, H. A., & Ballantine, J. H. (1988). The relationship of temperament to adjustment in British infant school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5), 585-595.
- Ladd, G. W. (1981). Effectiveness of a social learning method for enhancing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and peer acceptance. *Child Development*, 52(1), 171-178.
- Perry, K., & Weinstein, R. (1998). The social context of early schooling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3(4), 177-194.
- Pianta, R. (2007). Early education in transition. In R. Pianta, M. Cox, & K. Snow(Eds). *School readiness and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in the era of accountability*(pp. 3-10). Baltimore, MD: Brookes.
- Putallaz, M., & Gottman, M. (1981). An interactional model for children's entry

into peer groups. *Child Development*, 52(3), 986-994.

Ramey, S., & Ramey, C. (1994). The transition to school: Why the first few years matter for a lifetime. *Phi Delta Kappan*, 76(3), 194-198.

Slee, P. (1986).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other fac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djustmen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7(2), 104-112.

- 논문접수 8월 3일 / 수정본 접수 9월 2일 / 게재 승인 9월 13일
- 교신저자: 장수연, 송의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suyoun393@sewc.ac.kr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ren's Character and Adjustment in Kindergarten

Chang, Su-You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how early children's character affects their adjustment in kindergarten,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kindergarten teachers—of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and public childcare centers in Daejeon and —analyzed via mediated effect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using the IBM SPSS Win 22 softwar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aracter,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he children's adjustment in kindergarte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haracter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have direct effects on adjustment in kindergarten, whereas communicative competence is only a mediator between early children's character and adjustment in kindergarten. These results indicate a need for research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ren from general families. Further, various educational support should be conducted for children from general families and supported by policy implementation.

Keywords: character, communicative competence, adjustment in kindergarten